

## 나의 통일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 3원칙, 3단계 통일론“을 지지한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더 보태거나 덜어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자세와 사고 방식이다.

교류와 협력은 서두를수록 좋다. 그러나 통일은 아주 천천히 가야한다.  
“통일“은 두 개의 정권이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역사상 어느 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의 정권으로 합쳐진 일이 없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통독성을 폐지하고 동서간 대화의 문을 열었던  
역설적인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주변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이나 형식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 두어야 한  
다.  
상호간에 정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합의 통일로 가자는 데는 모두 동의하면  
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모순도 해소

되어야 한다.

상호주의는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형식논리나 자존심 싸움보다는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결과가 중요하다.

매 번의 협상마다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인 형평논리가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는 융통성 있는 상호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 비용에 관하여도 북방 경제시대를 여는 투자라는 관점으로 사고하자.

능동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도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상호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다.

과거 문민정부가 북미 회담에까지 필요 이상의 주도권 시비로 3자 관계를 모두 꼬이게 한 일은 편협한 국수주의적 태도가 아니었던가 싶다.